

'반쪽거울' 언론에 예리한 비판

언론이 개혁대상임을 파헤친 세권의 책

정대철

한양대 교수 · 신문방송학

언론은 중요한 사회적 체계이다. 사회에 건전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다. 언론은 사람 몸에 혈관과 같다. 언론이 담당하는 역할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까닭이다. 중요한 역할 때문에 언론에 부여되는 사회적 위상은 높아지고 강해지지만 언론을 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지만 언론의 본질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경우는 없는 편이다. 언론의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이다. 좀더 확장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증이 가려질 뿐이지 언론자체가 변질된 것으로 풀이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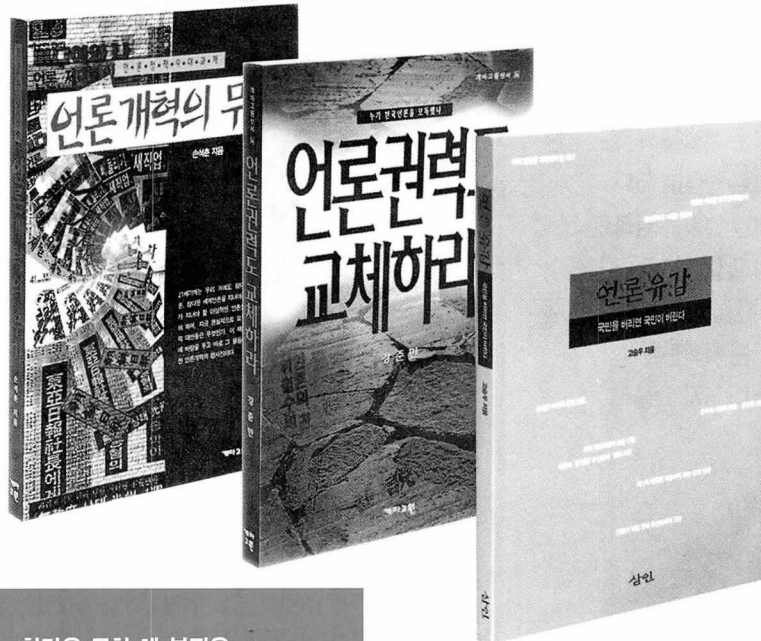
언론답지 못한 '깨진 거울'

우리 사회에서 정치나 경제에 이어 언론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고 권력자나 기업가처럼 행세를 하였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깨진 거울이었거나 반쪽의 거울이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외면하는 부호처럼 처신하기를 즐겨했고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의 맛을 찾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언론이 스스로를 위하여 할말을 못하고 보고도 못본체 재갈을 물린 듯 처신을 하였다면 이는 비겁할 뿐만 아니라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본질을 호도하는 언론에 대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3권의 책이 나란히 출간되었다. 한겨레신문 고승우 부국장은 《언론유감》을, 한겨레신문 손석춘기자는 《언론개혁의 무기》를, 그리고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는 《언론권력도 교체하라》를 내놓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언론현장에서 또 연구실에서 언론의 면면을 예리하게 살펴온 노련한 감각과 분석을 통해 꾸준히 언론을 비판하고 본디의 모습을 갈구하여 언론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기원해 왔다.

《언론유감》은 전체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에서 언론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론이 저지른 반 언론성과 15대 대선



할말을 못한 채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함을 보여온 우리사회 언론에 대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세권의 책이 나란히 출간됐다. 저자들은 언론현장 또는 연구실에서 '반쪽거울'로 처신해온 언론의 면면을 예리한 비판의 시각으로 파헤치고 있다.

과정에서 노출된 언론의 노골적인 후보 편 들기에 예봉을 쏘고 시작된다. 언론이 성역으로 자리잡아온 실태를 언론사적인 측면에서 살피는 3장에 이어 4장에서 분단구조의 통일언론에 장애가 된 언론현실을 들춰낸다. 5장과 6장에서는 상업주의에 찌들어 혼탁한 과당경쟁이 몰고온 파행과 재연되는 획일화 현상에서 언론의 시대적인 모순성을 지적하고 있다. 9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우리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사례를 프랑스 반역 언론인에서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눈에 비친 언론이 궤도를 어떻게 이탈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자기성찰을 통한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존재에 의문을 달면서 제자리를 떠난 언론의 역할들을 시대적으로 주제에 따라 꼬집고 있다. 언론을 본디의 자리로 회귀시켜 생존

의 의미를 일깨우려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새로운 언론에 대한 희망

《언론개혁의 무기》는 저자가 《신문편집의 철학》(풀빛, 1994)과 《신문읽기의 혁명》(개마고원, 1997)에서 제기한 언론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언론개혁의 방향이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아홉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서 정책실장을 맡아온 체험적 바탕에서 언론정책의 생성과정을 목격하였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권력언론과 신문재벌 그리고 편집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대하여 신문기사를 곁들여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수용자의 권리와 수용자를 위한 미디어교육과 신문판매방식이 공동 판매를 통하여 독자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7장에서 9장까지는 방송민주화와 광고주와 자본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새로운 언론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희망을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찾으려 한다.

《언론권력도 교체하라》는 저자가 93년부터 96년까지 3년에 걸쳐 김영삼정부와 언론 보도에 대하여 비판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분석력은 매우 경쾌한 달필로 정평이 나 있다. 언론과 정권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안목과 수집분석을 통하여 언론의 민주주의, 발표자널리즘의 횡

포, 상업주의적 국가안보로 이용하는 언론에 대해 썩기를 박는 역할에 주저함이 없었다. 저자인 강교수는 언론을 끼고 자행되는 정치와 권력에 대해 촉각을 늦추지 않았다. 파행적인 언론행태를 감시함으로써 올바른 언론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는 터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김영삼정부의 비극을 정치의 난맥에서 다룬 19개의 글들로 채워졌다. 3장에서 5장까지는 언론과 관련된 횡포와 추태 그리고 형식적 특수에 갖힌 허망한 관행과 파행과 경쟁에 대해 화살을 당기고 있다. 직접취재보다는 발표취재에 의존하는 보도, 언론이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외면하고 자기입장에 치중하는 보도, 언론의 사기업적 행태, 언론권력의 행세 등을 보도사례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6장에서는 방송개혁은 방송민주화 실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묻고 평가를 심판으로 강화시키는 글들이다. 마지막으로는 언론개혁을 외치는 글이다. 언론개혁이 없이는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언론은 시급한 개혁대상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기대

위 3권의 책은 공통적으로 언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김영삼정부에서 빛이던 언론환경은 정보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이익과 혜택에 집착한 나머지 언론의 목적이나 역할에서 제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언론 정책이나 언론의 향배가 제자리를 떠났거나 회귀하려는 노력이 미흡했거나 아예 도외시한 흔적을 들춰낸 책이다. 동일한 주제로 겹쳐진 부분도 있지만 기사나 사진을 곁들여 읽는 이들의 시각적 효과도 살려내고 있다. 밝은 사회에서 건전한 언론으로 성숙하여 권력과 재벌과 이익을 떠나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바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 책들이다. ◆

· 《언론유감》 삼인/A5신/256면/9000원
· 《언론개혁의 무기》 개마고원/A5신/256면/9000원
· 《언론권력도 교체하라》 개마고원/A5신/304면/9000원